

2018 새해 새 설계

정찬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장

“쏘울 후속모델 생산…글로벌 재도약의 해”

판매 목표 288만대…생산 총력

혁신·안전·고객중심 품질 강화

스포티지 등 주력차량 이미지 제고

소외이웃 지원 등 사회공헌 지속

“상식이 통하는 젊은 광주공장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장은 18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포부를 밝혔다. 정 공장장은 “올해는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을 달성하고 구성원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욱 젊은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 공장장은 올 한해를 광주공장이 어떠한 위기에든 흔들림 없이 경쟁력 있는 공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기아차 광주공장의 비즈니스 목표를 ‘상식이 통하는 젊은 공장’으로 정했다.

정 공장장은 올해 비즈니스 목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급변하는 시대에 더 이상의 낡은 비전과 사고로는 생존할 수 없다”며 “우리 공장의 가치와 비전을 살리기 위해서는 젊은 마음으로 조직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공장장이 말하는 올해 비즈니스 목표에는 기본을 지키며 본질적인 문제 접근방식을 지향하고, 기아차 조직문화 방향인 젊음과 함께하며 구성원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Without You, We are nothing’(당신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예요)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다.

광주공장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생산혁신 목표 필달 ▲고객중심 품질 강화 ▲최고안전 노사



신뢰 ▲젊은가치 젊은비전이라는 4대 추진과제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정 공장장은 이러한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2018년을 광주공장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역시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아차의 2018년 판매목표인 287만5000대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기아차 광주공장은 생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해에는 광주공장이 다시 한번 글로벌 공장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반석이 될 신차의 양산이 계획돼 있다.

정 공장장은 “현재 광주공장 성장의 배경에는 쏘울과 스포티지 등 경쟁력 있는 신차의 성공적인 양산이 있었다”며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쏘울 후속모델 역시 광주공장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생산이벤트인 만큼 전 부문이 힘을 모아 양산일정을 준수해 시장에서 성공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포티지’와 ‘봉고’ 등 주력 차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정 공장장은 상생과 동행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경제 기여도 1위의 사업장인 만큼 나눔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중추기업으로서 사회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강화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도 기아차 광주공장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기아 챌린지 콘서트 활동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문화공연 관람의 기회와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문화감성을 높이고 꿈을 키우는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 복지기관 협력 네트워크 사업인 기아 위드(WITH)를 통해 기아차와 지역 NGO가 함께 참여하여 아이디어 발굴 및 지역의 니즈를 지원하고, 공장 인근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을 위한 기아 드림 활동을 펼쳐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할 방침이다.

끝으로 정 공장장은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50년이 넘는 시간동안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지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지역 제조업을 대표하는 일등 사업장인 만큼 올 한해도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인 정 공장장은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1999년 1월부터 기아차에서 근무했으며 경영지원부와 생산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경영지원사업부장(상무)과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15.81 (+0.38) ▼ 금리 (국고채 3년) 2.17% (-0.06)

▲ 코스닥 898.19 (+11.61) ▲ 환율 (USD) 1070.70원 (+1.40)



영산강 품은 ‘첨단 진아리채’

진아건설 용두동에 236세대…광천동 이마트 옆 견본주택

광주지역 중견건설업체인 진아건설이 오는 26일 ‘첨단 진아리채’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광주시 북구 용두동 일원에 공급되는 첨단 진아리채는 지하2층~지상23층 10개동, 총 750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전용 84㎡(33평형) 단일 주택형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반 분양에서는 총 750세대 중 일반 분양 236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선호도가 높은 실속형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전세대가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채광과 환기, 통풍에 유리하며 174%의 낮은 용적율과 63m의 넓은 동간거리를 자랑한다.

또한 근거리에 위치한 영산강 수변 공원(광주)과 우지공원(광주 패밀리랜드) 등 우수한 자연환경이 인접해 친환경 주거단지 로 불린다.

첨단 1·2지구와 양산지구, 일곡지구의 생활권을 공유하며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닿는 상무지구와도 생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

학교 또한 우수하다. 용두초와 용두중이 가까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광주국제고 등 명문학교가 근거리에 있다. 또 양산타운 사거리 및 인근 첨단지구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어 교육환경이 좋은 편이다.

단지 바로 앞에 빚고을대로와 하서로, 임방울대로, 제2순환도로(동림IC)가 인접해 있어 광주 어디든 빠르게 연결되며 호남고속도로, 담양~장성간 고속도로(북광주IC)등으로 시내·외 진·출입이 수월하다. 견본주택은 광주시 서구 죽봉대로 53(화정동 11-14번지·이마트옆)에 위치해 있다. 문의 062-363-0808.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채권단 “외자 유치해 금호타이어 정상화”

채권단 만기 채권 연장·이자율 인하 등 유동성 대책 마련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새 주인 찾기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채권단 실무회의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9개 기관은 금호타이어의 경영상황을 고려했을 때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정상화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데 공감했다.

채권단은 외부자본 유치를 위한 소요기간을 감안해 차입금 만기의 1년 연장, 이자율 인하 등 유동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자본 유치는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받는 방식을 뜻한다. 채권단은 그동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포함해 채권단 자율협약 제제 유지, 단기 범정

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저울질했다.

채권단이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채권단과 매수자간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채권단으로서의 돌려받지 못한 채권이 2조3000억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금호타이어에 신규로 유동성을 공급할 여력이 없다. 채권단이 지난해 매각하려다 무산된 지분도 원래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빌려준 4600억원을 출자전환한 것이다.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을 사들여

금호타이어의 주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호타이어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로 돈을 들여야 한다.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채권단이 그동안 금호타이어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할 수는 없어 채권단에게는 일종의 ‘교육지책’인 셈이다.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를 위한 구상을 밝히면서 시간에 여유가 생겼지만 문제는 금호타이어의 자금계획 수용이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와 다음달 말까지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를 체결하기 했다. 이 약정서가 체결되지 않으면 채권단이 채권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한 합의가 무효가 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채권단이 최선을 다해 결정을 내렸으며 이제는 금호타이어의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며 “MOU 체결에는 노사동의서가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이 포함돼야 하므로 노사가 합심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연합뉴스

기아자동차 2017 임금협상 타결

기아자동차 노사가 해를 넘겨 줄다리 기하던 ‘2017년도 임금협상’이 18일 타결됐다.

기아차에 따르면 이날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된 노사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2만6760명(전체 조합원 2만8803명 중 92.9%) 가운데 66.6%인 1만780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8902명(33.3%), 기관은 204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노사가 27차 임금 교섭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은 ▲기본급 5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별도 호봉승급 포함) ▲성과격려금 300%+280만원 ▲재

래시장 상품권 40만원 등이다.

특히 이번 합의안에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20억원 출연 ▲장년퇴직 예정자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 등 노사 사회적 역할과 종업원 삶의 질 개선 관련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기아차 노사는 2016년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채용’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채용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도 밝혔다.

최종 노사간 임금 협상 조인식은 19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9억 3000만원 (평당 180만원)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420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필
- 매매 - 8억 5000만 (평당 60만원)

비금도, 팻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 분할매매가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60억, 매매 - 협의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토지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1억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60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300만원 임대
- 매매 - 8억 3천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